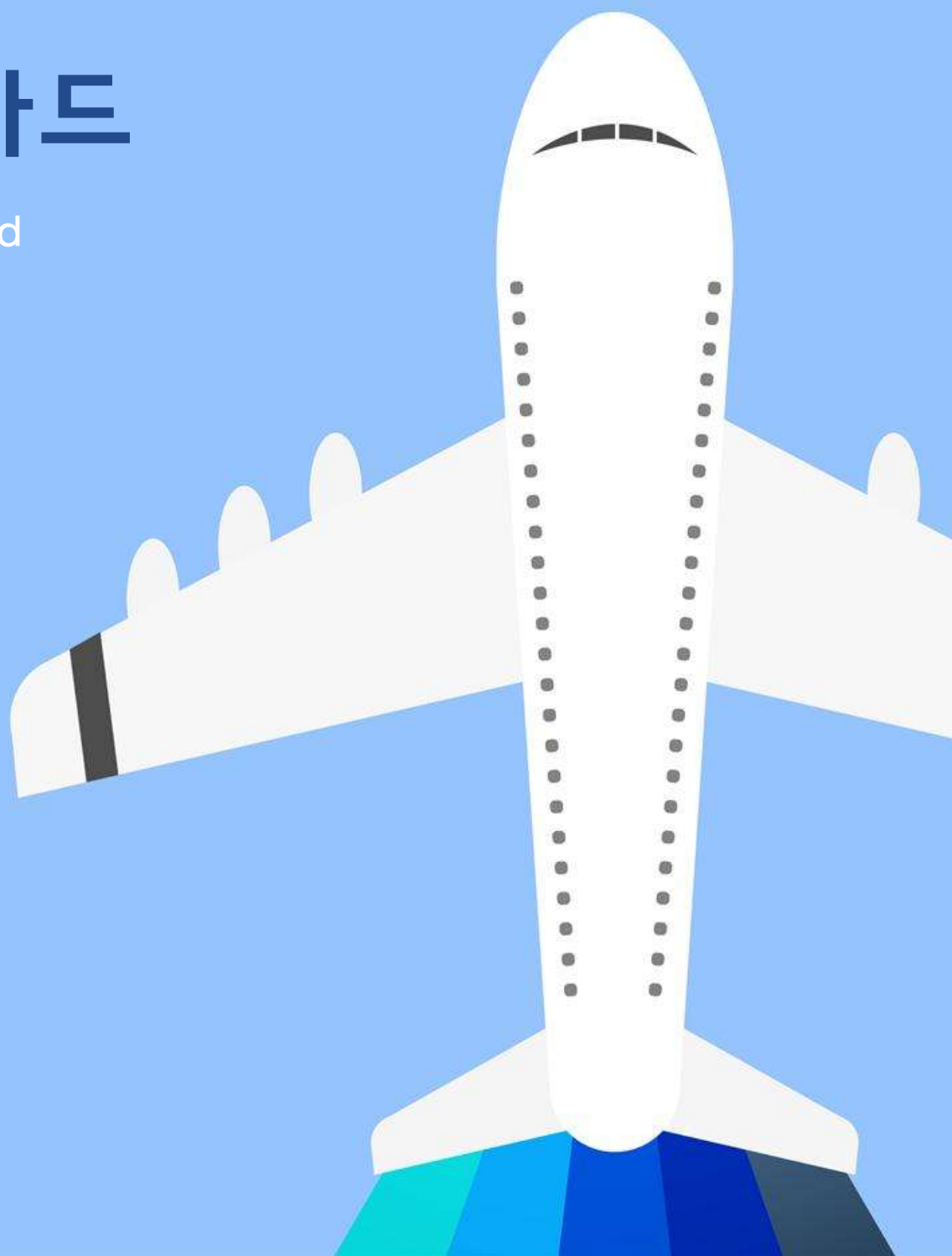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 암다바드

Ahmedabad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 인도 개황	1
II . 구자라트(Gujarat)주 개황	4
III . 인도 정치·경제 동향	6
IV .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7
V . 인도 경제 특징	10
VI . 인도 생활정보	14

I. 인도 개황

가. 국 가 개 요

국 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위 치	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 적	3,287,263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 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수 도	뉴델리 (New Delhi)
인 구	13억 9천만명 ('21, IMF)
주요 도시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암다바드, 푸네, 찬디가르, 하이데라바드
민 족	아리안계(72%), 드라비다계(25%), 몽골계 및 기타(3%)
언 어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종 교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0.8%), 자이나교(0.4%)
전국(독립)일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및 실권자	○ 국가 원수(대통령) :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 취임일 '17. 7. 25 (5년 임기) ○ 총 리 :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 취임일 : '14. 5.26 ('19. 5.19 연임, 5년 임기)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 자료원 : Census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나. 경 제 지 표

G D P	US\$ 2조 7천억 ('20년, IMF)					
경제성장률	-7.3% ('20/21 회계연도, 인도통계청)					
1인당 GDP	US\$ 1,964 ('20년, IMF)					
실업률	7.97% ('21년 4월, CMIE)					
소비자물가상승률	10.49% ('20년 4월, 인도 상공부)					
화폐단위	Rupee, Paise					
환율	US\$ 1= RS. 73.17 ('20년 6월 14일)					
외채	US\$ 5,635억 ('21년 3월, 인도 재정부)					
외환보유고	US\$ 5,900억 ('20년 5월 14일, RBI)					
교역규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2,646	2,995	3,246	3,242	2,763
	수입	3,617	4,498	5,145	4,860	3,728
	무역수지	-971	-1,503	-1,898	-1,618	-965
자료:GTA / 단위: 억\$						
교역품						
	○ 주요 수출품 : 석유, 금, 석탄, 석유가스, 의약품, 유기화학제품, 전자기기 등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귀금속, 전자기기, 유기화학제품, 합금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등					

*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해당

* 자료원 : 인도중앙은행(RBI), 인도통계실행부(MOSPI), CEIC, IMF, GTA

다. 한-인도 관계

체결협정	○ '70~'80년 : 무역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 '80~'90년 : 이중과세방지협정 ○ '90~'00년 : 항공협정, 관광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 '00~'05년 : 형사사법공조협정/범죄인인도조약,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 '06~'09년 : 세관협력협정, 과학기술협정 ○ '10.1월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 '11.7월 : 한-인도 민간원자력협력협정 ○ '11.10월 : 한-인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발효 ○ '11.11월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발효 ○ '12.3월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 '15.10월 : 한-인도 항공협정																																								
교역규모 및 교역품	○ 교역규모 (단위 : 억 달러)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r><tr><td rowspan="2">수출</td><td>금 액</td><td>115.9</td><td>150.5</td><td>156.1</td><td>151.0</td><td>119.4</td></tr><tr><td>증가율</td><td>-3.6</td><td>29.8</td><td>3.7</td><td>-3.3</td><td>-20.9</td></tr><tr><td rowspan="2">수입</td><td>금 액</td><td>41.8</td><td>49.4</td><td>58.8</td><td>55.6</td><td>49.0</td></tr><tr><td>증가율</td><td>-1.2</td><td>18.1</td><td>19.0</td><td>-5.4</td><td>-11.9</td></tr><tr><td colspan="2">무역수지</td><td>74.1</td><td>101.0</td><td>97.3</td><td>95.4</td><td>70.4</td></tr></table> ○ 인도의 주요 수출품목 - 석유화학제품, 귀금속, 의약품, 철강제품, 유기화학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전기기계 등 ○ 인도의 주요 수입품목 - 광물연료, 귀금속, 전기기계 및 장비, 원자로, 보일러, 유기화학물질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금 액	115.9	150.5	156.1	151.0	119.4	증가율	-3.6	29.8	3.7	-3.3	-20.9	수입	금 액	41.8	49.4	58.8	55.6	49.0	증가율	-1.2	18.1	19.0	-5.4	-11.9	무역수지		74.1	101.0	97.3	95.4	70.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금 액	115.9	150.5	156.1	151.0	119.4																																			
	증가율	-3.6	29.8	3.7	-3.3	-20.9																																			
수입	금 액	41.8	49.4	58.8	55.6	49.0																																			
	증가율	-1.2	18.1	19.0	-5.4	-11.9																																			
무역수지		74.1	101.0	97.3	95.4	70.4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20년말) - (신고건수) 4,060건, (투자금액) 67.9억 달러 - 투자 업종(금액기준) : 제조업(82.1%), 도소매업(4.9%) 등 ○ 인도의 對한국 투자 (~'21년 3월까지, 신고기준) - 7.8억 달러 규모이며 운송용 기계,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교민	총 교민 수 11,00여 명 (2021년 1월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부

II. 구자라트(Gujarat)州 개황

인 구 (2019, 추정치)	6,387만명 (인도 인구 5%) * 암다바드市 : 720만명	
면적(Km2)	196,024	
G D P (2019-20, IBEF)	U\$ 2,500억	
1인당 GDP (2019-2020, IBEF)	U\$ 3,500 (Rs 252,447)	
경제성장률 (‘17-‘18 IBEF)	11%	
州都	Gandhinagar(간디나가르)	
주총리	Vijay Rupani(BJP)	
주요개발구 및 중점 분야	• 16개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 중점분야: 석유화학, 항공우주, 국방, 제약, 식품가공,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	
투자환경	• 투자환경개선 지표: 5위/32개(주/연방관할지),WB/인도상공부(2018) • 항구(주요항만 1개 등 42개), 공항(1개 국제, 18개 국내) 등	
산업구조	• 제조업 45%, 서비스업 36%, 농업 19%	
주요 산업	산업	내 용
	석유화학	인도 전체 생산의 62%, 화학수출의 18% 차지
	제 약	인도 전체의 33%(67억\$), 수출의 28%(30.6억\$)
	보석가공	전세계 가공 다이아몬드 72%, 인도 수출의 80%
인도기업	• 인도 500대 기업 중 29개사의 본사가 구자라트에 소재 - Adani Enterprises, Adani Power, Gujarat Petronet, Torrent Pharmaceutical Ltd 등 주로 화학, 제약, 전력관련 기업	
외국기업	• Suzuki, Honda, L&T, BASF, Shell, Nivea 등	
한국기업 진출현황	• 포스코, 신한은행, 롯데제과, 현대로템, 국도화학 등 10여개사	

가. 구자라트州는?

- 구자라트州는 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면적 약 20만km², 인구 6천만명, 해안선 1,600Km와 아열대 건조기후대 특징을 지님
- Rajasthan의 마르와리와 함께 인도 2대 상인집단인 Gujarati의 본고장으로 전통적으로 긴 해안선 및 실크로드 교역로 이점을 이용한 상업에 종사
- 現 모디 총리가 2001년부터 13년간 주총리로 재임시 연평균 13%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도 제조업 선도 지역으로 부상
- 2019-20년 구자라트주의 지역의 총 GDP는 2,500억 달러규모로 인도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DP 3,500달러, 제조업 비중 45% 등 인도내 여타주 대비 경제성장을 주도

나. 구자라트州 주요 산업

- 구자라트는 화학, 석유화학, 유제품, 의약품, 시멘트, 세라믹, 보석류, 섬유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도를 대표하는 제조지역
- 구자라트는 106개의 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부 Morbi 중심의 Ceramic Cluster(인도 세라믹생산의 80%), 서부 Jamnagar 중심의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단지(Reliance Limited) 및 Brass Cluster(전 세계 Brass 제품 생산의 2.5%), 구자라트 남부 Surat 중심의 다이아몬드(세계 다이아몬드 가공의 80%) 및 섬유클러스터(인도 섬유생산의 60%) 등이 가장 대표적인 클러스터로 평가

다. 구자라트州 생활여건

- 구자라트는 라자스탄州 와 함께 인도내 가장 더운 아열대 준 사막지역으로 9~3월의 건기, 4~8월의 우기로 구분
 - 특히, 4~5월 기온은 최고 47~48도에 달하므로 주의 요망
- 주법으로 식당,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고 외국인에 한해 시내 지정 몇 군데 특급 호텔 내에서 일정 쿼터하 주류구입이 가능하나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음
- 전체 인구의 약 70%가 채식주의자로, 주요 식당에서도 채식이 일반적이며 소고기는 법상 금지, 돼지고기 및 닭고기도 구입 및 유통도 원활하지 않음

Ⅲ. 인도 정치·경제 동향

가. 정치동향

- 2014년에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신속한 정책, 책임 있는 정부를 모토로 기업환경 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를 슬로건으로 부처 통폐합, 혁신 마인드 확산
- 2016년 말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 조치로 역풍을 맞이하였으나, 2019년 5월 인도 총선에서 모디정부는 단독과반, 의석수 확대 등 압승을 거두며 2기 정부 국정동력을 확보, Digital India 2.0, 인프라 개선 등 핵심 경제 정책을 보다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 마련
 - * '21년 3월-5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 모디총리는 담화('21.6.7)를 통해 백신 공급 확대 천명

나. 경제동향

- 현 정부가 2014년 집권한 이래 7%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 하락세
 -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를($\Delta 23.9\%$)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플러스 반등
 - * ('20년) 2분기 ($\Delta 23.9\%$) → '3분기($\Delta 7.5\%$) → 4분기(0.4%) → ('21년) 1분기 (1.6%)
- '17년 7월 통합간접세(GST) 도입, '19년 9월 법인세 인하, '20년 9월 노동법 통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개혁 지속
 - * (통합간접세) 기존 지방별로 상이한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GST로 통합함
 - * (법인세) 기존 30%의 법인세를 22%로 인하하였으며, 신규 제조업체의 경우 17% 까지 법인세 인하
 - * (노동법) 다수의 개별법에 산재한 노동법을 4개의 기본법으로 통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 연달아 발표
 - * ('20.3) 의료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 7,000억 루피(한화 약 44조 원) 배정
 - * ('20.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97조 루피(한화 약 340조 원, GDP 10%) 투입
 - * ('20.10) 도로, 항만, 방위 등 인프라에 7,300억 루피(한화 약 11조 1,608억 원) 배정
 - * ('20.11) 일자리지원, 주택건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위해 2조 6,508억 루피(한화 약 4.1조원) 배정
- Self-Reliant India 정책 강화
 - Make in India 2.0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시대 對中 의존도 감소 및 자국 제조업 육성, 수출 강화를 위해, 13개 주요 산업분야 대상, 약 626조 원 규모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linked Incentives, PLI) 도입
 - * (13대 분야) 모바일 및 관련 부품, 전기전자, 의약, 화학전지 배터리, 자동차 및 부품, 전기 자동차, 통신기기, 식품가공, 섬유 제품, 백색가전, 태양광 PV 모듈, 의료기기, 철강
 - 2021/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내, 인프라 구축·고용 창출 등을 중점으로 전년 대비 14.5% 증액한 34조8천억 루피(한화 약 532조 원) 편성

IV.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가. 한-인도 무역 동향

- (교역) 양국 무역규모는 한-인도 CEPA(2009년 체결)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5년 수준인 168억 달러 기록
- (무역수지) CEPA 발효 이전 5개년간 평균 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다 점차 증가하여, 201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
 - 2020년 대인도 수출이 대폭 감소($\Delta 20.9\%$)하고 수입은 소폭 감소($\Delta 11.9\%$)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26.2% 감소한 70.4억 달러 기록

한 · 인도 연도별 무역규모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금 액	126.5	127.8	120.2	115.9	150.5	156.1	151.0	119.4
	증가율	10.7	12.4	-5.9	-3.6	29.8	3.7	-3.3	-20.9
수 입	금 액	78.9	52.7	42.3	41.8	49.4	58.8	55.6	49.0
	증가율	39.1	-14.7	-19.6	-1.2	18.1	19.0	-5.4	-11.9
무 역 수 지		47.6	75.1	70.7	74.1	101.0	97.3	95.4	70.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주요품목) 對인도 주요 수출품은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석유제품, 알루미늄, 농약 및 의약품 등

한 · 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2020		2021.4			2020		2021.4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철강판	1,235	-39.3	633	20.0	석유제품	1,058	-13.3	544	-21.0
합성수지	995	-18.9	618	83.8	알루미늄	745	-8.4	472	74.5
반도체	1,075	-26.6	468	51.7	농약·의약품	248	0.5	120	33.7
자동차부품	1,013	-11.9	400	-3.3	정밀화학원료	258	-5.1	105	16.7
석유제품	492	-22.6	344	86.6	식물성물질	227	1.9	88	17.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나. 한국의 對인도 투자

- (개요) 1980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70.5억 달러 투자
 - '96~'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발효 이후 진출 확대
 -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가 인도 내 공장 증설 완료

연도별 대인도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누적
신고건수	268	308	410	452	308	4,227
투자금액	337	516	1,072	453	625	7,054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투자분야)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60% 차지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업종	2020		누적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169	380	2,387	5,794
도소매업	35	7	485	346
운수창고업	8	1	122	113
정보통신업	28	27	231	110
기타	68	210	1,002	691
총계	308	625	4,227	7,054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투자기업) 전자, 자동차, 화학, 금융, 상사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

투자자 규모별 대인도 투자금액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 개사, 백만 달러)

구분	신규법인	신고건수	신고액	투자액
대기업	358	1,351	7,011	5,397
중소기업	561	1,848	1,831	1,528
기타	383	1,028	154	129
총계	1,302	4,227	8,996	7,054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다. 인도의 對韓 투자

- 유통, 식품분야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마힌드라(Mahindra)의 쌍용차 지분 인수(4.6억 달러, 2010년), 타타(TATA)의 대우상용차 지분 인수(1억 달러, 2004년) 등 대규모 투자도 진행
 - 반면 '10년 1월부터 '21년 3월까지 총 투자액은 7.8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
- 인도의 TATA consultancy service(연락사무소, 2003년), HTC Global Service(2013년 한국 진출), Tech Mahindra(연락사무소, 2014년)와 같은 IT서비스 기업 일부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

V. 인도 경제 특징

가. 인도 경제의 강점

- (광활한 국토)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인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 활용도가 뛰어나
 - * 국토 면적 :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순
- (세계 2위 인구) 13.9억의 인구로 세계 총 인구의 18% 가량을 차지,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보유
 - * 중국 인구 14.4억 명(세계 인구의 19%)으로 '27년 인도 인구수 중국 추월 예상
- (경제규모) 거대한 경제활동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GDP 순위 6위 기록
 - * 인도는 2020년 10월 IMF가 발표한 각 국가별 GDP 순위 6위 차지
- (과학기술)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IT, 수리/물리, 우주항공 외에도 제약 등 BT 산업 발달
- (서비스·지식) 서비스분야 FDI가 전체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인도는 글로벌 서비스·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국
 - * '00년 4월~'21년 3월 누적FDI 기준, 서비스 분야가 870.6억 달러로 전체의 16%

- **(활발한 직접투자)**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경제 위축 및 경제성장을 하락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분야별 FDI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 정책으로 2020/21 회계연도 유입 FDI는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596.4억 달러
- **(성장단계)**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

나. 인도시장 중점 트렌드

- **세계 제조 거점으로 부상, 친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 친기업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
 - * 'Make in India', 'Digital India', 州間기업환경개선 경쟁 치열(세계공장 가능성)
 - * 간접세제 개혁완료(통합간접세 도입, 7월 1일부), 노동법, 토지취득법 완화 추진
- **도시화 진행 속 인프라 개선, 인접국간 연계 인프라 확대 노력**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고속도로, 철도, 전력, 수처리 등
 - 민간 합작 파트너십 프로젝트(PPP)를 통해 벵골만 연안국간 고속도로 연결, 항만, 전력거래, 국경무역촉진 노력 지속
 - 2021년 인도 건설 인프라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6%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연평균 7.0%의 성장률 예상

다. 인도 경제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파키스탄 국경접경 지역의 소요사태 빈번, 파키스탄과는 양국간 4차례 전쟁으로 역내 경제협력체제 확립 애로
 - 2017년 3월 이래 반년 동안 지속된 동북부 도크람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대치상황, 서북부 잠무&카슈미르 파키스탄 접경지역 소규모 충돌 등
- **(비즈니스 환경)** 인도의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기업환경은 개선 중
 - 세계 주요 도시 생활여건 조사 시 주로 서남아지역 도시가 하위권

- * EIU 생활여건 조사('19): 뉴델리 118위, 뭄바이 119위, 카라치 136위, 다카 138위
- 반면 기업환경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제도로 인해 진출기업의 불편 상존
- * 세계은행 사업용이성평가(Ease of Doing Business) : (2019) 100위 → (2020) 63위
- * (BRICS·베트남) 브라질 124위, 러시아 28위, 중국 31위, 남아공 84위, 베트남 70위
- **(인프라) 전력부족에 따른 수시 정전, 낮은 공업용수 품질, 도로미비, 공항·항만 부족 등 인프라 미흡**
- **(빈부격차) 일일 소득액 \$2 이하의 인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배 이상 증가** 하여, 1억 3,400만 명에 이르며(Pew Research 보고서, 2021), 인도 NGO(Oxfam)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73%의 부를 소유
- **(사회갈등) 종교, 카스트, 농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갈등 지속**
 - 카스트 제도가 헌법으로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며, 모디 정부의 **힌두교 중심주의로 인한 종교적 갈등 상존**
 - 2020년 6월, 농산물 산업 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개혁 법안이 발표되면서 농민층 시위 지속
 - * 전국 2억 5천여 명의 농민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 파업 및 시위에 참가했으며, 각 지역에서 시작된 농민시위는 수도인 뉴델리까지 이어짐
 - * 지속된 시위로 정부는 18개월간 법안 시행 일자를 연기할 것을 발표했으나 해당 법안을 일시적으로 시행 중단한 정부와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간 갈등 지속 ('21.6.1. 기준 농민-정부 간의 12차례의 협상이 이루어 짐)
- **(우발적 사태) '08년 뭄바이, '11년 델리 고등법원, '13.10월 인도 북동부 인도국민당(BJP) 유세장 사건 등 각종 테러사건 잇따라 발생**

라. 인도시장의 잠재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도인

- 미국 과학자의 12%, NASA 과학자 36%가 인도인
- 과학자/엔지니어 조달 용이성 세계 1위 (세계 경쟁력 보고서)
- 글로벌 IT기업 직원 중 다수가 인도인 : MS(34%), IBM(28%), Intel(17%), Xerox(13%)
- 미국 의사의 38%, 영국의사의 1/3이상이 인도인
- Hotmail 창시자(Sabeer Bhatia), Sun Microsystem 공동 설립자(Vinod Khosla), 펜티엄 칩 설계자(Vinod Dham)
- 구글(순다 피차이), MS(사티아 나델라), 어도비(산타누 나라옌) 등 인도계 CEO 다수

○ (자동차)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對인도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인도 + 중동 및 서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제조 허브 구축. 201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승용차 생산국에 등극했으며, 2021년에는 세계 3위인 일본을 제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부품시장은 2026년까지 2,000억 달러의 시장규모 기대
- '18년까지는 내수시장을 앞세워 생산·판매율이 증가했으나, '19년부터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20년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생산·판매율 감소
 - * 2020년 인도내 차량 생산대수는 340만대, 판매 290만대 규모로 전년대비 각 25%, 23% 감소
- '21년 회계연도 상용차(CV) 판매 23~28% 증가 등 향후 산업 회복 전망
- 州정부는 환경오염, 석유수입 의존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으로 전기차 생산, 판매 및 구매 장려. 현대, MG Motor, 테슬라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 계획 중

○ (유통) 인도 소매유통 시장규모는(2018/19 회계연도 기준) 9,500억 달러로 세계 4위 규모이며, 2024년까지 1.3조 달러(Forrester Research, '21.3), 2026년까지 1.75조 달러의 시장규모 전망(FICCI, '19.10)

-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으로, Amazon, 소프트뱅크, Reliance, Walmart 등 주요 기업들이 대인도 투자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 2020/21 회계연도 대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 499억 8천만 달러 대비 19% 증가한 596.4억 달러
- OECD는 회계연도가 아닌 2020년 기준 글로벌 FDI 유입이 전년 대비 34% 감소한 1조 105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인도는 13% 증가한 640억 달러로 3위로 발표(21.04)
- UNCTAD는 글로벌 FDI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8,590억 달러, 對 인도 FDI는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21.01.24)
- 주요 투자국 순위는 싱가포르 29%, 미국 23%, 모리셔스 9% 順

VI. 인도 생활정보

가. 기후 및 복장

- 구자라트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700 mm 정도이며, 인도내에서 가장 더운 아열대 기후로 4~5월 최고기온이 50도에 육박
- 반면, 겨울은 낮 평균 기온이 25도 내외, 저녁은 10도 내외로 상대적으로 쾌적한 날씨를 보임
- 4~8월의 우기에는 평균 35도 내외이며, 갑작스런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므로 우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호텔 등 실내에서 냉방을 강하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으며, 야외의 경우 햇볕이 강하므로 긴 소매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나. 주의사항

□ 치안

- 인도내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카슈미르, 북동부 2~3개주, 안다만 제도 등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요구 되며 이들 지역은 테러에 의한 집단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
- 구자라트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드물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교통

- 오토릭사(오토바이 뒤에 승객 칸을 붙인 3륜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
- 시내버스의 경우 연결 노선이 불편하고 언어 소통문제가 있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바가지 요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승차 전에 가격을 확인하거나 Uber, Ola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출입국시 유의사항

- 외화반출은 현금 5천불, 여행자수표 포함 1만 불이므로 5천불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공항당국에 반드시 신고 필요
- 공항은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만 입장 가능

□ 카스트제도 관련

- 카스트 제도는 법률상으로 이미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생활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상대방의 카스트를 물어보거나 카스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제

□ 위생

- 현지 음식으로 인한 배탈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은 미네랄워터 생수병을 사서 마시는 것을 권고
 -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무역관 직원 또는 현지교민에게 안전하다고 인증된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을 권유
- 식당이나 심지어 호텔에서도 생수가 새것인지 잘 확인해보고, 양치할 때에도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다. 주요 연락처

□ KOTRA 암다바드 무역관

- 주소 : 805 & 806 Shivalik Shilp BD, Iscon Circle, SG Road, Ahmedabad 380015, Gujarat, India
- 전화 : +91-79-49130-110 / 팩스 : +91-79-49130-110
- 관장 핸드폰 : +91-74330-97830

□ 주 뭄바이 총영사관

- 주소 : 12th floor, Lodha Supremus, Dr.E Moses Road, worli Naka, Mumbai 400018
- 전화 : +91-22-6147-7000 / 팩스 : +91-22-6147-7000
- E-mail : mumbai@mofa.go.kr
- 총영사 김동영, 부영사 박상진, 영사 홍현도 (비자, 여권 담당)

□ 한인 게스트 하우스 (한국맛집)

- 주소 : C5-13 1st FL orchid harmony apple wood township, South bopal, Ahmedabad
- 전화 : +91-87589-35911 / 이메일 : hanil1214@hanmail.net

□ 구자라트 암다바드내 주요 병원 및 긴급연락처

병원명	주소	전화
Zydus Hospital	Zydus Hospitals Road, Nr. Sola Bridge, S.G. Highway, Ahmedabad, Gujarat	+91 79 66 19 0201 +91 79 66 19 0200 (Emergency No)
Apollo Hospital	Plot No.1A, Gandhinagar - Ahmedabad Road Bhat, GIDC Bhat, Estate, Ahmedabad, Gujarat	+91 79 6670 1800
긴급전화 (경찰) 100 (화재신고) 101 (앰블런스) 102 (전화번호 안내) 197 (관광객 헬프 라인) 1363		

라. 주요 관광지

□ 간디 아슈람 (Sabarmati Ashram)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띠야그라하 (Satyagraha) 운동을 구상하고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 철폐의 가치를 세운 아슈람으로 1917년 6월에 지어졌다.

▶간디는 12년간 이 아슈람에서 지냈으며, 영국이 소금세를 인상하자 '인도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며 단디 행진을 떠났던 곳이다.

□ 아달리지 우물 (Adalaj Step-well)



▶물이 귀한 인도 서부지역에 만들어진 계단식 우물로 지하에 건축된 구조이다.

▶1499년에 만들어졌으며, 석조로 된 5개 층의 지하건축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 악샤르담 사원 (Akshardham Temple)



▶1992년 지어진 구자라트 최대의 힌두사원으로, 간디나가르에 위치해있으며, 힌두교의 화신(avatars)과 현인(sages)이 조각되어 있어 종교 예술과 인도 건축미를 볼 수 있다.

▶'스와미나라얀(Swaminarayan) 악샤르담'이라고도 불리며, 힌두교들에게 영원한 헌신, 순결,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